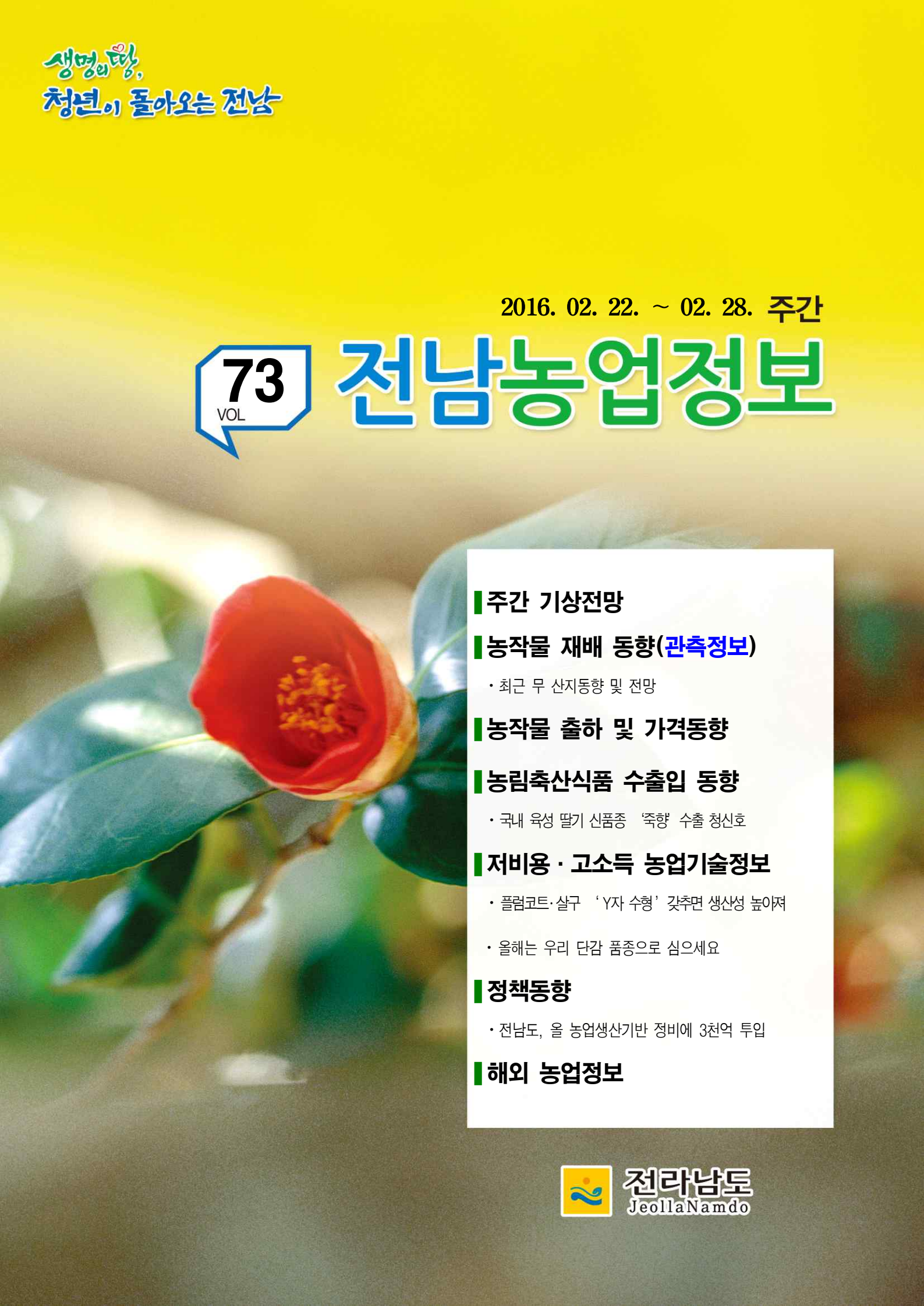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2016. 02. 22. ~ 02. 28. 주간

73 VOL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 최근 무 산지동향 및 전망

농작물 출하 및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국내 육성 딸기 신품종 '죽향' 수출 청신호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플럼코트·살구 'Y자 수형' 갖추면 생산성 높아져
- 올해는 우리 단감 품종으로 심으세요

정책동향

- 전남도, 올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3천억 투입

해외 농업정보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 5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겠음

❀ 농산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 8

▸ 최근 무 산지동향 및 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9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1

▸ 전남 친환경쌀, 2년 연속 부산 학교급식 공급

▸ 광양시, 농식품 가공 전문역량 갖춘 농업인 육성

▸ 고흥군, “최고품 하나봉 만들기” 기술보급 나서

▸ 화순군, 과수원 현장 기술지원 강화

▸ 강진군, 브랜드 개발 도농 직거래로 농업의 새미래 열어

▸ 무안군, 한우개량 등록 지원

▸ 장성군,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스타트’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0

▸ 국내 육성 딸기 신품종 '죽향' 수출 청신호!

▸ 인도네시아 수출 딸기 등 7작물 안전성 강화한다

▸ 우리 품종 '신비디움' 절화 수출 현장 평가회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4

▸ 플럼코트·살구 'Y자 수형' 갖추면 생산성 높아져

▸ 올해는 우리 단감 품종으로 심으세요

▸ 병에 강하고 수량 많은 참깨, '강안' 개발

▸ 씨닭 생산성 향상의 열쇠는 사양과 부화 관리

▸ 부족한 조사료, 봄 귀리 재배로 보충하세요!

▸ 동계작물 풍년 농사 관리는 지금부터!

▸ 양파 노균병 방제 빨리 서둘러야!

▸ 봄철 앞둔 환절기 화훼작물 곰팡이병 주의보

❀ 정책 동향 37

▸ 전남도, 올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3천억 투입

▸ 농식품부·지자체, '16년 농식품 수출 확대계획 공유

❀ 해외 농업정보 ····· 40

▸ 일본, 냉장 조리식품 시장 성장

▸ 캄보디아, 망고산업 동향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2. 22.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전일 1.3% 하락하며 반등을 시도했으나 기록적인 전세계 공급량 및 수출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반등에 실패하며 약보합 마감.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장중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다 보합 마감함.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브라질 대두 생산이 기록적으로 많을 것이란 전망이 확대되며 하방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짐.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45

▸ 전남농기원, e모바일쇼핑몰 운영 전문가 교육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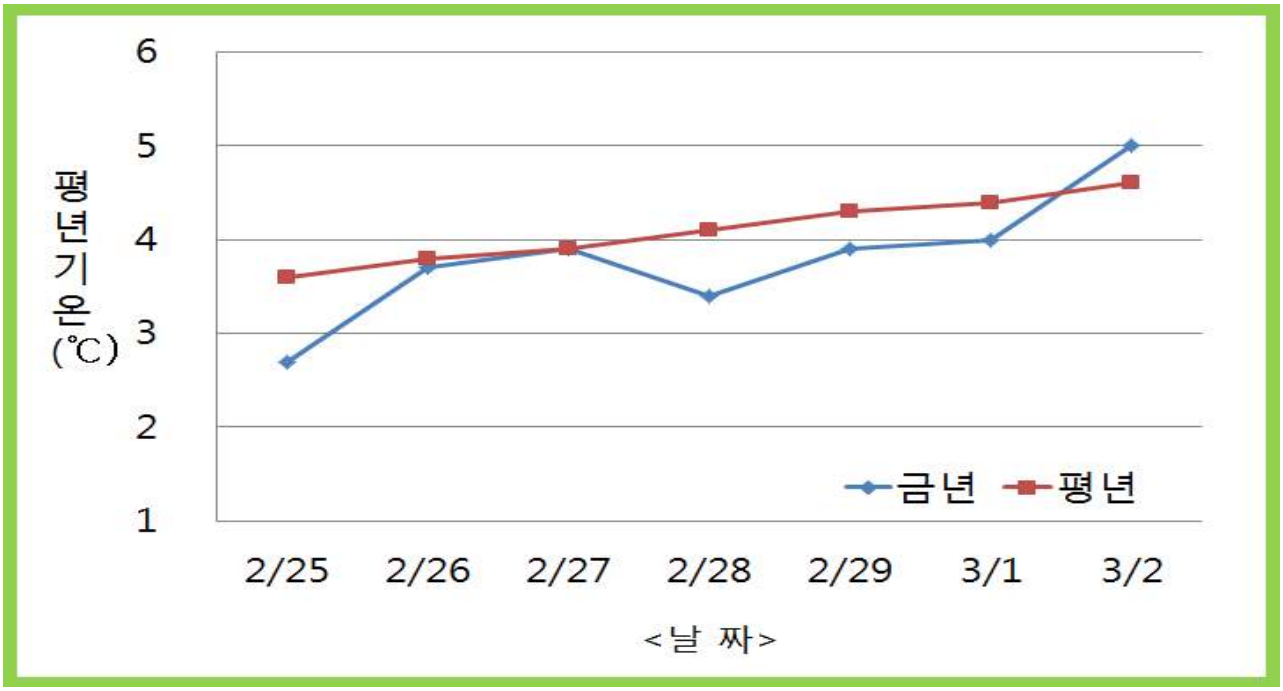
▸ 농식품부 수출, 이제는 온라인으로 !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9	4.2	-0.3	8.1	9.6	-1.5	-0.3	-1.1	0.9	2.0
2. 25.(목)	2.7	3.6	-1.0	6.0	8.8	-2.8	-0.7	-1.3	0.6	2.5
2. 26.(금)	3.7	3.8	-0.1	8.0	9.1	-1.1	-0.6	-1.3	0.7	2.3
2. 27.(토)	3.9	3.9	0.0	8.0	9.3	-1.3	-0.3	-1.4	1.1	2.4
2. 28.(일)	3.4	4.1	-0.8	7.0	9.6	-2.6	-0.3	-1.2	0.9	1.7
2. 29.(월)	3.9	4.3	-0.4	8.0	9.8	-1.8	-0.2	-1.2	1.0	1.8
3. 01.(화)	4.0	4.4	-0.5	8.0	9.9	-1.9	-0.1	-1.0	0.9	1.8
3. 02.(수)	5.0	4.6	0.4	10.0	10.1	-0.1	0.0	-0.9	0.9	1.9
3. 03.(목)	5.0	4.7	0.3	10.0	10.2	-0.2	0.0	-0.7	0.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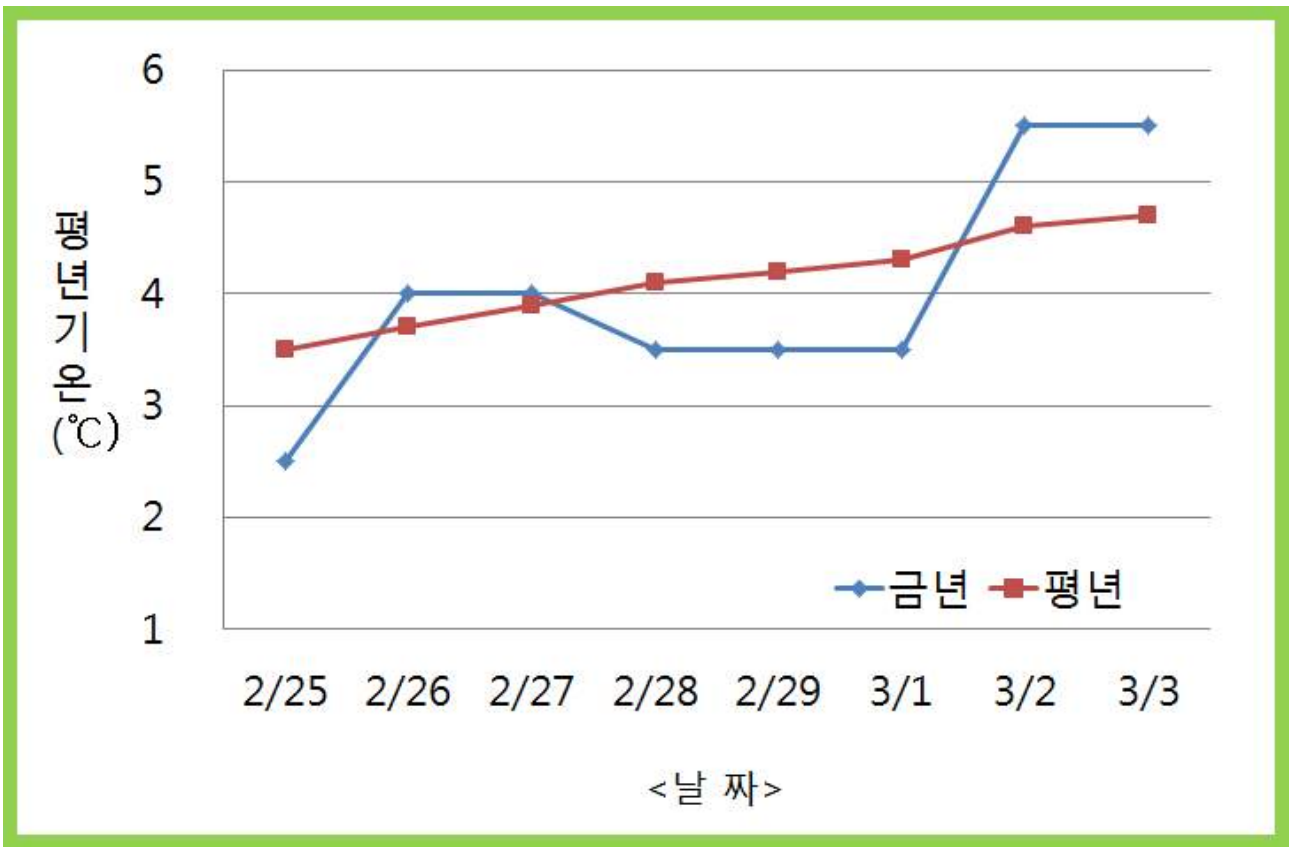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4.0	4.1	-0.1	8.1	9.1	-0.9	-0.1	0.5	-0.6	1.5
2. 25.(목)	2.5	3.5	-1.0	6.0	8.3	-2.3	-1.0	-0.1	-0.9	2.2
2. 26.(금)	4.0	3.7	0.3	8.0	8.6	-0.6	0.0	0.1	-0.1	1.6
2. 27.(토)	4.0	3.9	0.1	8.0	8.7	-0.7	0.0	0.4	-0.4	1.6
2. 28.(일)	3.5	4.1	-0.6	7.0	9.0	-2.0	0.0	0.5	-0.5	1.2
2. 29.(월)	3.5	4.2	-0.7	8.0	9.2	-1.2	-1.0	0.6	-1.6	1.2
3. 01.(화)	3.5	4.3	-0.8	8.0	9.4	-1.4	-1.0	0.7	-1.7	1.2
3. 02.(수)	5.5	4.6	0.9	10.0	9.6	0.4	1.0	0.9	0.1	1.4
3. 03.(목)	5.5	4.7	0.8	10.0	9.7	0.3	1.0	1.0	0.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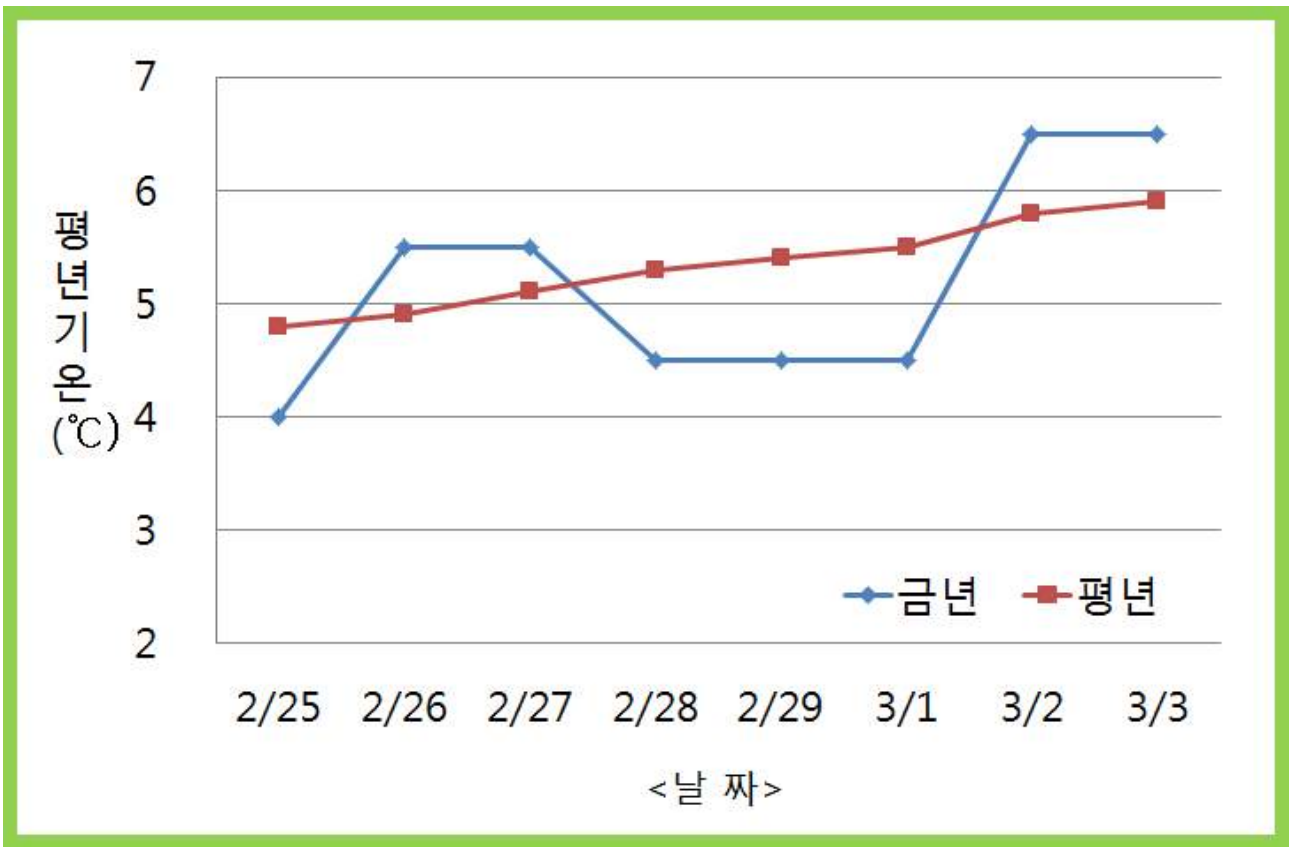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5.2	5.3	-0.2	9.1	9.3	-0.2	1.3	2.0	-0.7	1.7
2. 25.(목)	4.0	4.8	-0.8	7.0	8.6	-1.6	1.0	1.7	-0.7	1.9
2. 26.(금)	5.5	4.9	0.6	9.0	8.8	0.2	2.0	1.7	0.3	1.9
2. 27.(토)	5.5	5.1	0.4	9.0	8.9	0.1	2.0	1.8	0.2	2.0
2. 28.(일)	4.5	5.3	-0.8	8.0	9.2	-1.2	1.0	1.9	-0.9	1.5
2. 29.(월)	4.5	5.4	-0.9	9.0	9.4	-0.4	0.0	2.0	-2.0	1.5
3. 01.(화)	4.5	5.5	-1.0	9.0	9.5	-0.5	0.0	2.1	-2.1	1.4
3. 02.(수)	6.5	5.8	0.7	11.0	9.8	1.2	2.0	2.3	-0.3	1.8
3. 03.(목)	6.5	5.9	0.6	11.0	10.1	0.9	2.0	2.4	-0.4	1.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최근 무 산지동향 및 전망

❑ 1월 하순 이후 무 도매가격은 월동무 출하량 감소로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높은 수준

○ 최근(1월 하순~2월 상순) 무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18kg당 15,391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높은 수준

❑ 월동무 주산지 기상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나, 1월 하순보다는 출하 여건 호전

○ 2월 상순 현재, 월동무 재배면적의 30% 내외 출하되었으며, 2월 하순부터 저장 입고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사

○ 월동무 작황은 작년 및 평년보다 부진

❑ 월동무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8%, 16% 감소 전망

○ 월동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8%, 16% 적은 24만 9천톤 전망

단위 : ha, kg, /10a.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15년산		4,109	6,058	248,923
2014년산		4,189	7,200	301,608
평 년		4,409	6,697	295,268
증감률	작년 대비	-1.9	-15.9	-17.5
	평년 대비	-6.8	-9.5	-15.7

주 : 식재년도 기준이며, 평년은 2010~2014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2. 22.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2/22)	1주일전 (02/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41,400	42,333	↓ 12.6	↓ 14.5
	콩(백태)	35kg	150,000	149,000	149,000	140,000	182,333	↑ 7.1	↓ 17.7
	고구마(밤)	10kg	27,000	27,200	25,040	23,400	26,373	↑ 15.4	↑ 2.4
	감자(수미)	20kg	31,000	31,000	29,560	30,050	30,257	↑ 3.2	↑ 2.5
채소류	배추(월동)	1kg	880	760	628	425	770	↑ 107.1	↑ 14.3
	양배추	10kg	6,000	6,700	6,180	6,425	7,995	↓ 6.6	↓ 25.0
	오이(다다기계통)	10kg	39,667	32,667	34,400	40,556	38,992	↓ 2.2	↑ 1.7
	애호박	8kg	27,000	28,400	35,640	32,450	29,233	↓ 16.8	↓ 7.6
	토마토	10kg	29,600	31,800	30,720	28,300	34,403	↑ 4.6	↓ 14.0
	당근	20kg	25,000	24,800	24,200	19,400	24,280	↑ 28.9	↑ 3.0
	건고추(화건)	60kg	780,000	780,000	780,000	820,000	870,667	↓ 4.9	↓ 10.4
	풋고추	10kg	75,600	89,000	57,200	118,400	95,987	↓ 36.1	↓ 21.2
	마늘(깐마늘)	20kg	162,000	160,000	151,200	99,700	111,833	↑ 62.5	↑ 44.9
	양파	20kg	32,200	32,800	33,320	11,250	18,530	↑ 186.2	↑ 73.8
	대파	1kg	3,150	3,180	2,480	1,530	1,761	↑ 105.9	↑ 78.9
	파프리카	5kg	28,800	31,200	59,200	30,800	34,630	↓ 6.5	↓ 16.8
	멜론	8kg	26,600	26,600	28,560	32,400	45,175	↓ 17.9	↓ 41.1
	방울토마토	5kg	21,400	23,800	21,600	16,100	21,493	↑ 32.9	↓ 0.4
	수박	1개	16,400	18,600	21,520	16,950	17,847	↓ 3.2	↓ 8.1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7,400	36,600	36,200	41,800	51,867	↓ 10.5	↓ 27.9
	배(신고)	15kg	45,600	44,000	44,280	36,100	45,853	↑ 26.3	↓ 0.6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2/22)	1주일전 (02/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29,000	528,000	564,667	↑ 0.2	↓ 6.3
	느타리버섯	2kg	9,400	12,500	11,520	16,650	10,387	↓ 43.5	↓ 9.5
	새송이버섯	2kg	8,600	9,400	8,240	10,750	9,233	- 0.0	↓ 6.9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085	8,271	7,962	6,682	6,080	↑ 21.0	↑ 33.0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68	1,897	1,843	1,913	1,784	↓ 2.4	↑ 4.7
	닭고기	1kg	5,121	5,061	5,353	5,190	5,742	↓ 1.3	↓ 10.8
	계란(특란)	30개	5,457	5,513	5,530	5,952	5,661	↓ 8.3	↓ 3.6
	우유	1리터	2,549	2,549	2,548	2,548	2,357	- 0.0	↑ 8.1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전남 친환경쌀, 2년 연속 부산 학교급식 공급

– 부산 연제구 품평회서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 1위로 선정 –

○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이 부산 학교급식에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공급된다.

○ 전라남도는 부산 연제구청 주관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공급업체 결정을 위한 품평회'에서 친환경쌀 생산 전문업체인 해남 땅끝황토 친환경영농조합이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 품평회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전국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영양교사, 학부모, 학생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식품안전, 위생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밥맛과 업체를 평가했다. 그 결과 해남 땅끝황토 친환경영농조합과 고흥 흥양농협이 1위와 2위를 차지해 전남 친환경쌀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이에 따라 해남 땅끝황토 친환경영농조합은 3월부터 12월까지 연제구 16개 초등학교와 6개 중학교에 200여톤의 친환경쌀을 공급한다. 이번 성과는 전라남도가 적극적인 홍보 판촉활동을 벌인데다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이 부산 연제구 학교와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펼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은 연제구 학생, 학부모를 초청해 모내기 등 친환경농업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각 학교에 벼농사 체험시설 설치·관리 등을 통해 유대를 강화해왔다.

○ 특히 청소년 성장발육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이 일반쌀보다 30% 이상 높은 기능성 쌀인 하이아미와 밥맛이 좋은 일미벼를 우렁이농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 이렇게 생산된 친환경쌀은 서울 서대문구 마을생협 등과 직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해남지역 학교와 광주, 서울 관악구·서대문구 학교급식에도 공급되고 있다.

○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 타 시도 학교급식에 전남 친환경쌀 공급을 확대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에 전국 최초로 유기농쌀을 공급하고, 서울지역 학교급식 친환경쌀 소요량의 55%를 납품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 농식품 가공 전문역량 갖춘 농업인 육성

- 3~10월 농식품 가공 창업교육 실시, 6차 산업 육성 박차 -

○ 광양시가 농식품 가공 전문역량과 실행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한다.

○ 시는 오는 3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광양읍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식품 가공 창업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6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에서는 가공사업 창업마인드 배양과 식품관련 법규, 창업계획서 작성요령, 상품개발, 농가 현지코칭, 농산물 가공 공동조직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의 내용으로 이론과 실습, 현장교육, 상품개발 품평회 등이 진행된다.

○ 교육 참여는 자가생산하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 개발 의지가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3월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시는 신청이 완료되면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기존 가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농산물 가공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면담과 서류 검토를 통해 최종 3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 이은희 농식품가공팀장은 농식품 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기 확보한 국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농산물 종합가공장 건립을 계획 중이라며, 이번 교육 수료생은 이 시설을 활용하여 가공 판매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 안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광양시

고흥군, “최고품 하나봉 만들기” 기술보급 나서

○ 고흥군은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봉 재배농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품 하나봉 재배 기술교육”을 가졌다.

○ 하나봉 수확 후 본격적인 관리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품종마다 다른 생리적 특성에 맞는 재배 환경 관리법 강의와 현장 연시회가 이루어졌다.

○ 교육을 진행한 이중석 강사에 따르면, 시설하우스는 주야간 온도차가 15℃가 넘지 않도록 주간에는 환기를 통해 하우스 내 온도를 낮추어 고온으로 인해 새싹이 너무 일찍 나오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 강의 후 특화작목연구포장에서 이루어진 정지·전정 연시회에서는 3개의 주 가지를 적정 간격으로 배치하고 가지마다 새 가지와 잎을 틔워 빈 공간을 매우도록 하는 관리법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 이중석 강사는 “현재 온난화로 인해 남쪽에서 재배되는 작물이 북쪽으로 확대된다고는 하나 작물은 극저기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배 한계 지역이 빠르게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하나봉 재배에 있어서 고흥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흥지역은 높은 일조량과 유리한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재배기술에 따라 품질차이가 크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하나봉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중심 교육과 컨설팅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고흥군

화순군, 과수원 현장 기술지원 강화

– 과수원 월동 병해충 방제기술지원단 운영 –

○ 화순군 (군수 구충곤)은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해 과수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동계약제 살포시기 및 방법 등 현장 기술지원 강화에 나섰다.

○ 군은 이번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집중 방제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과 읍면상담소장 2개팀 6명으로 방제기술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 과수 동계 병해충 방제는 2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동계약제에는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석회 보르도액이 있다.

○ 기계유유제는 깍지벌레·응애류·진딧물류·나방류의 애벌레와 알 등 방제에 효과적이며 전체 나무에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해 주면 된다.

○ 석회유황합제는 복숭아 잿빛무늬병·흑성병·흰가루병·잎오갈병 등의 병과 깍지벌레·응애 등의 해충 방제에 효과적으로, 과수 병해충 방제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 석회보르드액은 발아 직전 또는 개화 직전에 살포하면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을 예방할 수 있다.

○ 이와 관련, 화순군 복숭아 재배 면적은 190ha로 전남에서 1위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11개 작목반에 360여명의 농가가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다.

○ 특히 복숭아를 지역 대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3회에 걸쳐 복숭아농업인대학(연간 100시간 과정)을 운영했다.

○ 또한 복숭아연구회 2개회 68명을 조직해 매월 정기적으로 활동하면서 정지전정, 병해충 예찰, 수확 후 관리 등 주요 현안 사항 등을 토론과 현장 과제 학습 등을 통해 농업인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재배 면적의 지속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해 전국 최고 명품 복숭아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복숭아 등 과수 재배기술 상담을 원하는 농업인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담당(061-379-5422)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 화순군

강진군, 브랜드 개발 도농 직거래로 농업의 새미래 열어

– 강진 건강 10대 농·수·축산물 브랜드 선정·집중 육성, 직거래 시스템과 시너지 효과 –

○ 잇따른 FTA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농촌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남 강진군이 역발상을 통해 위기의 농촌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

○ 강진군이 선택한 키워드는 '마케팅과 직거래 유통 혁신, 브랜드 상품개발'이다. 특히 브랜드 상품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 '강진 건강 10대 농수축산물 집중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건강에 좋은 먹거리 등 수퍼 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 건강에 좋은 10대 품목을 선정해 강진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

○ 10개 품목에는 강진에서 생산된 귀리·연근·흑염소 등 관심도가 높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체작물과 여주·아스파라거스 등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특화 작목 등을 후보품목으로 선정하고 검증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 군은 10대 건강식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5일 순천대 이기웅 교수,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조창완 전남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을 비롯한 지역 농업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 군에서는 조사된 60여개 품목 중 15개 예비품목을 선정해 오는 26일까지 품목조사와 데이터 분석, 내부 검토 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10대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된 10대 건강 농수축산물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브랜드 및 패키지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 맞춤형 농·축산물로 육성된다.

○ 특히 강진군의 도·농 유통 혁신 직거래 시스템으로 정착한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에 입점 및 홍보는 물론 택배비 지원, 컨텐츠 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강진군의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는 지난해 강진군이 농어가의 생산과 포장, 택배 직거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으며 강진군의 농어가 300호가 가입해 지난 2015년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대표적인 직거래 유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초록믿음 직거래 센터에서는 초록믿음 추천 12대 상품으로 강진 착한 한우·해조세트·매생이·참전복·친환경 김 등을 판매해 전년 대비 125% 상승한 8억 8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마케팅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수축산물도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고객들이 신뢰하고 구할 수 있는 브랜드와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다져놓은 초록믿음의 유통 시스템과 고객 설문조사, 피드백 관리를 통한 마케팅, 10대 건강 브랜드 개발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강진군

무안군, 한우개량 등록 지원

– 한우 혈통 및 고등등록으로 농가 소득 향상 기대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한우의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계획교배 및 선발, 도태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우수한 한우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혈통 및 고등등록을 위한 등록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 한우 혈통등록지원 사업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량우를 확보함으로써 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올해 2,500두의 혈통·고등등록을 위해 사업비 1,750만원을 보조한다.

○ 무안군은 사업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지난달 20일 업무 대행기관인 목포·무안·신안축협과 2016년도 축산관련 대행사업 추진 협의회를 갖고 유기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 무안군 관계자는 “2016년 1월 기준 무안군의 한우등록은 1만 3,806두이며, 상반기에 등록 계획량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농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축협 등과 매월 점검을 통한 우수 개량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에서 챔피언(경산우)과 최우수상(미경산우), 우수상(암송아지)을 수상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미경산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한우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출처 : 무안군

장성군,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스타트'

– 제3기 농산물 가공 창업 기초반 개설...가공창업, 위생관리, 법규 등 중점 교육 –

○ 장성군이 가공제품 생산기술과 경영 마인드를 갖춘 농산물 가공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섰다.

○ 군은 농산물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기존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총 10회, 40시간 과정으로 '제3기 농산물 가공 창업 기초반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 이에 군은 창업에 필요한 절차, 관련법규, 위생관리, 식품가공기술 등 가공창업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 추진해 농업인들의 가공기술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가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신청기간은 2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군 농업기술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50명을 선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 4일(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촌자원담당(☎061-390-843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장성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국내 육성 딸기 신품종 '죽향' 수출 청신호!

－수출딸기 신품종 현장 평가회에서 좋은 반응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국내 육성 딸기 신품종을 시범 수출한 '죽향' 품종이 태국 등 동남아 지역의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품종으로 평가를 받아 수출길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 밝혔다.

○ 농업기술원은 2월 18일 곡성 수출단지에서 농촌진흥청 딸기 수출 연구사업단과 공동으로 수출 딸기 신품종 현장 평가회를 가졌다.

○ 국내에서 육성한 딸기 신품종 죽향·신명 등 5품종을 재배하여 과일 품평 및 시식회를 통해 맛(당도)과 모양이 좋고, 과일이 단단한 '죽향'과 '신명' 2품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들 품종은 태국 시범 수출에서도 해외 바이어와 현지 소비자들로 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 현재 곡성에서 수출하고 있는 '설향' 품종은 봄철이후 과일이 쉽게 물러져 3월 이후 고온기에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선발한 '죽향'·'신명' 품종이 유망한 품종으로 선발 되므로써 딸기 수출농가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게 되었다.

○ 곡성 수출딸기는 2013년부터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주식회사에서 동남아 지역에 돌(Dole)회사와 '맘愛담은 딸기' 자체 브랜드로 연간 15톤 내외의 수출을 하고 있어 매년 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년에는 7.2ha에서 수확한 딸기는 공동선별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태국·싱가포르 등 동남아지역에 주 2~3회 수출하고 있고 4월 상순까지 수출할 계획이다.

○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서종분 육종연구팀장은 “딸기 수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수출에 알맞은 품종 조기보급과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 기술접목으로 수출농업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인도네시아 수출 딸기 등 7작물 안전성 강화한다

– 농촌진흥청, 對 인도네시아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 사용지침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인도네시아 식품안전규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산물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수출농산물 농약안전 사용지침’을 발간·보급한다.

○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큰 규제 없이 통관을 허용해 왔으나 17일부터 잔류농약 검사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요건을 대폭 강화한 ‘식품안전규정’을 전격 시행한다.

○ 이에 정부는 인도네시아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통관 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안전 사용지침을 설정·보급하고, 현장 기술 지원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 이번에 보급하는 농약안전 사용지침은 인도네시아에 주로 수출하는 딸기·토마토·감귤·사과·배·단감·버섯 등 7작물을 담고 있다.

○ 지침서에는 작물별, 적용 병해충별 사용 가능한 농약과 사용량, 안전 사용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의 잔류 기준을 표시해 수출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를 수출 관련 기관과 단체, 수출업체, 수출단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조남준 과장은 "이제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은 설 자리가 없다."라며, "특히, 수출 농산물은 대상국마다 요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 농가와 업체 등에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우리 품종 심비디움 절화 수출 현장 평가회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8일 국산 심비디움의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자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심비디움 절화(꺾은 꽃) 출하 현장에서 평가회를 연다.

○ 이번 현장 평가회는 국산 심비디움을 재배해 온 허순재 농가(제주 서귀포시)에서 재배 상황과 품질을 점검하고, 절화 수출 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 평가회에서는 심비디움 농가와 심비디움 종묘 생산업체, 수출업계,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수출을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 평가받는 품종은 약 3년 전 어린 모종으로 보급했던 심비디움 품종 스위트웨딩·퍼플스타·러블리스마일 등 4품종이다.

○ 특히, '러블리스마일'은 분홍색 계열로 꽃대가 고르게 난다. 또한, 꺾은 꽃의 수명을 조사한 결과, 27일 이상으로 국산 심비디움 품종 중 가장 길어 수출용 품종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 그동안 심비디움은 화분 형태로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해 왔으나 최근 절화(꺾은 꽃)의 비중이 늘면서 일본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절화의 경우 2010년 이후 일본으로 수출량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절화용 심비디움을 많이 볼 수 있다.

○ 2015년 난 수출액은 5,323천 달러이며, 이 중 심비디움 절화 수출액은 1,317천 달러를 차지한다.

○ 평가회가 열리는 허순재 농가는 2008년도부터 난연구사업단 연구에 참여하며 국산 심비디움을 재배해 왔으며, 올 겨울 국산 10여 품종 8,200본을 일본에 수출했다.

○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난 품종은 심비디움 46품종으로 주로 화분용이다.

○ 당분간은 화분용으로 육성한 심비디움 중에서도 절화 수명이 길거나 백색계 등 절화용으로 중요한 형질을 보유한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수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박부희 농업연구사는 "심비디움 절화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농가는 선별과 포장 등 품질 관리에 힘쓰고, 절화 전용 품종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플럼코트·살구 'Y자 수형' 갖추면 생산성 높아져

– 'Y자 수형' 재배 위한 겨울철 전정 워크숍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유망한 플럼코트와 살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나무 모양과 전정 방법을 소개하는 워크숍을 16일 전라남도 나주의 재배 농가에서 연다.

○ 플럼코트와 살구는 'Y자 수형' 재배를 통해 어린 나무일 때 생산성과 열매의 품질 향상이 가능하다.

○ 'Y자 수형'이란 2개의 주지를 Y자 모양으로 배치해 높이를 낮춘 나무 모양으로 80~300cm 높이에 80%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해 농작업이 쉬운 특징이 있다.

○ 'Y자 수형' 구성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3년차일 때 2개의 주지를 Y자 형태로 유인하고, 결과지(열매를 맺는 가지)를 좌우에 배치해야 한다.

○ 플럼코트 '하모니' 품종을 'Y자 수형'으로 재배할 경우, 심은 지 4~5년차에 한 그루당 20~30kg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수형에 비해 15% 이상 많은 수량이다.

○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 종간교잡이며, '하모니'가 대표 품종이다. 나무 자람은 살구와 비슷하고 맛은 살구와 자두의 중간 맛이다.

○ 플럼코트 '하모니' 품종의 숙기는 경기도 수원을 기준으로 6월 30일 경이고, 과일 무게는 80g 내외로 살구에 비해 크고 당도가 높은 편이다.

○ ‘하모니’는 꽃가루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열매 달림을 위해서는 꽃가루가 많은 살구나무를 40% 이상 함께 심어야 한다.

○ ‘하모니’ 묘목은 통상실시권을 구매한 민간 종묘사에서 구매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윤석규 농업연구사는 “최근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 플럼코트와 살구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력은 덜 수 있도록 ‘Y자 수형’ 재배를 권장하며, 어린 나무일 때 정지·전정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올해는 우리 단감 품종으로 심으세요

– 달콤한 완전단감 품종 ‘감풍’·‘조완’ 제격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기존의 품종과는 다른 달콤한 완전단감 품종을 국내 최초로 육성해 보급에 나선다. 이에 단감 묘목 교체를 원하는 농가를 위해 국산 품종을 추천한다.

○ 단감은 현재 ‘부유’ 품종이 전체 재배 면적의 82.5%로 편중돼 있으며, 추석에 주로 유통되는 ‘서촌조생’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았다.

<감풍>

<조완>

○ 따라서 ‘부유’의 편중 재배를 해결할 수 있는 품종과 추석에 맞춰 출하할 수 있는 조생종 완전단감 품종의 육성과 보급이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은 2012년 '조완', 2013년에 '감풍' 품종을 육성해 2014~2015년 통상 실시해 농가에 묘목을 보급하고 있다.

○ '조완'은 9월 하순에 수확되는 추석용 완전단감으로, 열매 무게가 200g 내외로 중간 정도이고, 당도는 16°Bx 이상으로 높으며, 과즙이 풍부해 식미가 우수하다.

* 수확 시기가 비슷한 대조 품종인 '서촌조생'은 불완전단감으로 평균 당도 13~14.5°Bx

○ 10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감풍'은 열매가 큰 고품질 완전단감 품종이다.

○ 열매 무게가 400g 이상으로 '부유'보다 크고 과즙이 풍부해 식미도 우수하다. 수확 시기가 '부유'보다 10일 가량 빨라 단감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다.

○ 또한, 당도가 높고 결과지(열매 맺는 가지)를 쉽게 유지할 수 있으며, 껍질 터짐 등 생리장해가 적어 '부유'를 대체할 품종으로 손색이 없다.

○ 이 국산 단감 품종의 묘목을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061-330-1542)로 문의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의 마경복 농업연구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육성, 보급하는 완전단감인 '조완'과 '감풍'은 달콤하고 과즙이 많아 식미가 뛰어나다."라며, "단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보급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병에 강하고 수량 많은 참깨, '강안' 개발

– 올해 3월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 통해 농가 보급 예정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병에 강하고 수량이 많은 흰색 참깨 '강안'을 개발했다.

○ '강안'은 키가 147cm로 큰 편이고 꼬투리가 많이 달려 수량이 10a당 117kg으로 많다.

○ 특히, 참깨를 재배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역병과 잎마름병에도 강하다.

○ 지방 함량은 46.4%이고 항산화 성분인 리그난 함량이 100g당 510mg 정도다.

○ 재배할 때는 일조시간이 적거나 온도가 낮고 물빠짐이 불량한 토양을 피해야 한다.

○ 특히, 8월 이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돌림병과 잎마름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제하도록 한다.

○ 또한, 토양 전염이 되는 돌림병·시들음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같은 땅에 심지 말고 돌려짓기를 하는 것이 좋다.

○ '강안' 참깨는 종자 증식을 위해 지난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0.6톤을 생산했으며, 올해 3월부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 추가 종자 분양이나 구매 문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나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과 오인석 과장은 "앞으로 병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개발하고 더불어 참깨의 재배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씨닭 생산성 향상의 열쇠는 사양과 부화 관리

– 종계 사양과 부화 관리 기술 보급 나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주)삼화원종과 함께 육용 종계(고기용 씨닭)의 사양 관리와 부화 관리 지침서를 발간하고 기술 보급에 나선다.

○ 국내 육계산업은 원종계, 종계(씨닭)를 수입해 실용계를 생산하는 구조로, 건강한 실용계 생산을 위해서는 철저한 종계 사양과 부화 관리가 중요하나 국내 종계 생산성은 그리 높지 않다.

* 종계 1마리 당 병아리 보급 수(60주, 마리): 한국 110(추정), 아시아 평균 137, 세계 평균 129

○ 육용 종계는 성성숙이 되는 시점에 목표 체중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육용 종계는 22주령 2.2kg이 적정 체중으로, 이는 사료 성분과 제한 급이 등 영양소 섭취량 조절로 가능하다.

○ 또, 성장률이 좋은 수탉을 종계로 선택하면 자손인 실용계의 성장률도 높일 수 있으므로, 성장이 빠른 개체를 3~4주 제한 사양 직전에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화 관리는 씨알(종란) 보관에서 병아리의 발생까지의 과정으로 농장에서는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해 부화율과 병아리 품질을 높여야 한다.

○ 검란은 종란 취급과 관련된 종계장 문제와 발육기 부화장 문제를 일찍 찾아낼 수 있어, 종계 생산성과 부화 관리의 문제점을 찾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 아울러 산란율, 폐사율, 난각 품질, 사료 섭취량 등 농장 기록과 부화장 기록을 통해서도 부화율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문홍길 가금과장은 “농가는 사육과 부화 관리 단계별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종계 산업의 선진화는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국내 양계 산업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종계 사양과 부화 관리 지침서’는 각 단계별로 생산성을 저하하는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측정·평가 방법을 수록했으며, 도 농업기술원과 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041-580-6731)로 문의하면 발간 수량 내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도 볼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부족한 조사료, 봄 귀리 재배로 보충하세요!

– 생육 속도 빨라 짧은 기간 내 많은 수량 얻을 수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해 가을 파종 시기부터 올 1월까지 이상기상으로 겨울작물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며, 봄 귀리 재배를 통한 조사료 확보를 당부했다.

○ 청보리·호밀 등 겨울작물을 파종한 이후 따뜻한 날씨로 인해 식물이 웃자란 상태에서 최근 강추위가 이어짐에 따라 작물이 얼어 죽는 피해와 수량 감소가 예상된다.

○ 사료작물 중 귀리는 생육 속도가 빨라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수량을 얻을 수 있어 봄철 조사료용 작물로 적합하다.

○ 파종은 땅이 녹은 후 일찍 하는 것이 좋지만, 어느 지역에서든 3월 20일 이전에만 파종해 6월 상순에 수확하면 1ha당 30톤 이상의 담근먹이 수량을 올릴 수 있다.

○ 봄 재배용 귀리는 수확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조생종이 수량 면에서 유리하지만, 다수확이 목적이라면 만생종이 유리하다.

○ 특히, 논에서는 벼를 이앙하기 위해 귀리를 일찍 수확하게 되면 수량이 매우 적으므로 반드시 조생종을 선택해야 하고, 조생종도 가능하면 5월 하순 이후에 수확해야 수량이 높다.

○ 국내 품종으로는 조생종 '하이스피드'와 '다크호스', 중만생종 '조풍'이 있으며, 종자는 종자회사나 축협·낙협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 봄 귀리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100일 내에 식물체가 자라서 높은 수량을 내는 만큼 비료 등 생육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 간격을 25cm 내외로 줄뿌림 할 경우 파종량은 1ha당 180kg, 흩어뿌림 할 때는 1ha당 200~220kg 정도가 알맞다.

○ 비료는 1ha당 요소 130kg, 용성인비 250kg, 염화가리 67kg을 파종할 때 전량을 주고, 식물이 20cm 정도 자랐을 때 요소 130kg을 추가로 주면 좋다.

○ 파종 후 토양이 건조한 경우에는 땅을 밟아 주는 것이 좋지만 습한 경우 땅을 눌러줄 경우 오히려 출현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논에서는 강우에 대비해 배수로를 깊게 파야 습해를 막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한옥규 농업연구사는 "이상기온으로 겨울작물 재배가 어려운 요즘에는 안정 생산이 중요하다."라며, "농가가 안정적으로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동계작물 풍년 농사 관리는 지금부터!

– 마늘·양파, 맥류, 조사료 생육재생기 웃거름 주기·배수로 관리 철저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주요 동계작물인 마늘·양파, 밀·보리, 조사료의 생육재생기가 시작됨에 따라 비료 주기, 배수로 관리 등 포장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마늘·양파

○ 지난해 9~10월 파종 및 아주심기 이후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아 평년보다 웃자라 연약한 상태로 겨울을 날 수 있어 자칫 관리가 소홀할 경우 수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리 피해를 막으려면 솟구친 마늘과 양파는 즉시 땅을 잘 눌러 주고 뿌리 부분이 완전히 묻히도록 흙을 덮어준다.

○ 마늘의 웃거름 주는 시기는 난지형의 경우 4월 상순까지, 한지형은 4월 하순까지 완료하되 비가 내리기 직전에 주는 것이 좋다.

○ 양파는 지역별로 생육 상황과 포장 조건에 따라 알맞은 양을 주는데 토양이 습할 때는 물 200L, 건조할 때는 400L 이상에 충분히 녹인 뒤 분무기로 골고루 뿌려준다.

○ 잡초는 없애주고 포장의 물빠짐 관리는 물론, 고자리파리·노균병·뿌리응애 등 병해충도 제때 방제해야 한다.

❑ 밀·보리 등 맥류

○ 쌓인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수분이 많아져 맥류의 습해가 우려되므로 배수로를 정비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한다.

○ 보통 논은 생육재생기 7~10일 후 10a당 요소 9~11kg을 웃거름으로 준다. 사질논이나 잘 자라지 못하는 포장, 웃자란 포장은 생육재생기 직후에 요소 5~6kg을 뿌린 뒤, 20일경에 다시 요소 5~6kg을 뿌려준다. 맥주보리는 웃거름을 한 번만 줘야 단백질 함량을 낮춰 질 좋은 맥주보리를 생산할 수 있다.

○ 보리밭이 얼어서 부풀어 오르거나 이상고온으로 웃자란 보리가 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롤러부착 트랙터로 땅을 다져준다.

○ 생육 중기에 발생하는 잡초 방제는 뚝새풀과 광엽잡초가 많은 포장은 치펜설 푸론메칠 수화제, 잡초가 3~4엽기로 자랐을 때는 벤타존 액제를 뿌려준다.

❑ 사료작물

○ 생육재생기에는 땅이 녹는 즉시 땅을 눌러줘 토양 수분 이용을 극대화하고, 자라기 시작할 때는 웃거름을 충분히 준다.

○ 땅을 눌러주면 뿌리가 토양과 밀착돼 봄철 건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뿌리 발육과 가지치기(분얼)도 촉진할 수 있다.

* 겨울나기 전·후로 진압을 잘하면 조사료 생산량 15% 이상 향상

○ 웃거름 주는 시기는 재배 지역의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겨울 난 후 생육이 시작될 때이며, 남부 지방은 2월 중순, 중부지방은 2월 하순, 중·북부 지방은 3월 상순이 알맞다.

* 웃거름 양은 IRG의 경우 ha당 요소비료 11포(220kg), 청보리와 호밀은 8포(160kg) 정도가 적당

○ 농촌진흥청 김상남 기술보급과장은 “겨울작물은 생육재생기 이후 관리가 품질과 수확량을 결정할 만큼 생육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기술 지원 추진으로 수급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양파 노균병 방제 빨리 서둘러야!!

– 2월 평년기온 회복세로 노균병 발생 우려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최근 기상이 평년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양파 주산지역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노균병 방제작업을 서둘러 실시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양파 노균병 발생에 적합한 온도는 10℃ 정도이며, 잎 표면에 물기가 2시간 이상 묻어 있을 때 발생이 잘된다. 따라서, 비가 잦고 안개 끼는 날이 많으면 발생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최근 낮 기온이 15℃를 넘었다가 잠시 낮아졌으나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어 서둘러 노균병 방제를 시작해야 한다.

○ 양파 노균병에 감염되면 2월 하순부터 잎이 연두색으로 변하면서 아래로 처지는 현상과 함께 전체 포기가 위축되는 증상을 보이면서 고사한다. 특히 4월 상순까지 발생된 양파는 거의 수확이 어려우며 4월중·하순까지 발생된 양파도 크기가 작아지는 피해를 초래한다.

○ 양파 노균병 1차 방제시기는 정식 직후로 스프링클러 관수나 강우시 토양으로부터 전염되므로 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2차 방제시기는 월동 후 병든 식물체에서 포자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2월 하순부터 10일 간격으로 방제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양파 노균병은 정식 직후부터 10일 간격 3회, 2월 하순부터 10일 간격으로 생육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약제를 살포하면 96% 방제가 가능하고, 친환경재배에서도 석회 보르도액과 석회 유황합제를 동일한 시기에 교대로 살포하면 78% 방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친환경농업연구소 고숙주 연구사는 양파 노균병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방제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봄철 앞둔 환절기 화훼작물 곰팡이병 주의보

– 잿빛곰팡이병·노균병·균핵병 주의... 온실 환기·지속적 예찰 필요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봄철 출하를 기다리는 화훼농가에 '곰팡이병'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병 증상과 방제법을 제시했다.

○ 환절기인 2월 말~3월 중순은 밤낮의 큰 기온차로 온실 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곰팡이병 발생이 예상된다.

○ 특히, 출하를 앞둔 절화(꺾은 꽃)와 초화 등 다양한 화훼 작물은 밀식으로 인해 온도와 습도 관리뿐만 아니라 방제도 어려워지므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이 시기엔 꽃을 피워 출하하는 팔레놉시스·덴파레·백합류에서 꽃잎에 '습진'이 나타나 상품성이 떨어진다. '습진'은 잿빛곰팡이병 피해로 15℃ 전후의 저온에서 발생한다. 또한, 공기 중 습도가 높으면 노균병, 토양 습도가 높을 땐 균핵병 발생이 많아진다.

○ 잿빛곰팡이병은 거의 모든 작물에 발생한다. 특히, 화훼에서는 꽃잎에 수침상 내지 옅은 갈색의 점무늬가 나타나 상품성이 떨어진다. 팬지 등 초화류에서는 잎이 썩으며 심한 잿빛곰팡이를 형성하는 증상을 보인다.

○ 노균병은 잎이 물에 데친 것처럼 변하고 말라죽게 된다. 꺾은 꽃용 장미·카네이션이나 무가온에서 재배한 라넌큘러스에서 문제가 된다. 잎이 많아 통풍이 안 되는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며, 잎 뒷면에 생기기 때문에 방제도 어렵다. 특히, 장미에서는 급성으로 발생할 때 잎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라넌큘러스 노균병>

<스토크 균핵병>

○ 균핵병은 토양 근처의 줄기에서 발생하며, 하얀 솜털 같은 곰팡이와 쥐똥 모양의 균핵(균덩어리)을 형성한다. 물 빠짐이 나쁜 습한 토양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고, 한번 발생한 농가는 해마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이 같은 병은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낮에 환풍기를 켜놓고 적절한 환기로 습도를 60~70%로 최적 상태를 유지한다.

○ 잿빛곰팡이병은 병든 식물체 표면에 많은 병원균 포자가 생기고 높은 습도가 유지되면 빠르게 확산한다. 특히, 꽃 피는 작물은 개화 전에 적용 약제를 뿌려 병원균의 밀도를 낮춰야 한다.

○ 노균병은 예방과 방제를 위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를 지속적으로 예찰해야 한다. 일단 발생하면 급속도로 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용 약제를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 균핵병은 토양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물빠짐에 주의하고, 토양 속에 병원균이 오랫동안 남아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라죽은 식물체는 뿌리를 포함해 바로 치워준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한경숙 농업연구사는 "봄철 출하를 앞둔 화훼작물의 곰팡이병을 예방하려면 적절한 재배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예찰로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8. 정책 동향

◈ 전남도, 올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3천억 투입

-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중점… 상반기 60% 조기 집행 -

○ 전라남도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총 3천 329억원을 투입하고, 상반기에 60%를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 올해 추진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기반 시설물 현대화와 밭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사업은 재해 및 영농 대비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00억원, 저지대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개선사업 455억원, 노후 제방과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보수보강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384억원,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 개설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385억원 등이다.

○ 또 일반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가운데 영농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 필지별 면적을 대형화해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63억원 등 총 21개 사업에 3천 3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전라남도는 앞으로 저수지, 양수장 등 주요 시설물은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재해 대비 및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비 추가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3월 초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침 시달회의'를 개최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부실시공 예방 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비 투입은 고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규모화와 기계화 영농이 가능토록 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FTA 대응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한 용수 개발과 배수 개선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청

◈ 농식품부 · 지자체, '16년 농식품 수출 확대계획 공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6일 농식품부와 지자체(9개도)·농진청·산림청 등이 참여한 지자체 합동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수출 비상점검 TF는 정부지자체와 농진청·산림청 등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15년 7월 구성되었으며,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9개도와 농진청·산림청의 농식품 수출 업무 담당국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별 수출확대 계획>

○ 경기도는 인니·말련 등 주요 할랄 관련 국가 대상 판촉전을 개최하고, 안성 과수농협 APC·고양 선인장작목회 등에 대해 시설개선·물류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 강원도는 해외 상설매장(미국·캐나다)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내 수출기업 협의체를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충청북도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중국·이슬람권 시장 공략 및 유기농식품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한다.

○ 충청남도는 인삼에 대해 말련·홍콩·베이징 등 주력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6차산업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상품을 지속 발굴한다.

○ 전라북도는 쌀·삼계탕(중국)·딸기(동남아) 등에 대한 해외 홍보·판촉을 강화하고, 플로리스트 초청 꽃꽂이 시연회 개최 등 화훼류 수출을 지원한다.

○ 전라남도는 수출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수출기업 특례보증, 수출 보험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 경상북도는 품목별 '수출 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전략품목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 경상남도는 우수 가공식품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지원을 확대하고, 가공·수출 전문업체 육성과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중 FTA를 활용한 대중 수출 확대 및 일본시장 회복을 위해 중국 바이어 초청행사, 일본 현지 판촉 등을 추진한다.

○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출 확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9. 해외 농업정보

◈ 일본, 냉장 조리식품 시장 성장

○ 일본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고령자 근로 확대로 조리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집밥과 외식의 중간 형태로 냉장 조리식품을 가정에서 먹는 나카쇼쿠(なかしょく)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나카쇼쿠란 음식점에서 사먹는 '외식(外食)'과 집에서 요리해 먹는 '내식(內食)'의 중간 형태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임.

○ 미즈호 은행에 따르면, 나카쇼쿠 시장은 2014년 6조 2,000억엔에서 2020년 6조 8,000억엔으로 연평균 1.1% 성장해 집밥·외식·나카쇼쿠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단신세대 수는 1968년 569만 세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366만 세대에 달함. 이에 따라 총 세대에서 단신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높아져 1968년 19.8%에서 2014년은 27.1%까지 상승함.

○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 이후 절약지향 성향이 더욱 강해진 점도 나카쇼쿠 및 택배식 시장의 확대로 연결됨.

○ 저성장 기조로 고전하는 외식업계의 냉장 조리식품 및 택배식 시장으로의 진입이 확대됨.

○ 나카쇼쿠 및 택배식 시장 확대에 따라 편의점 및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외식 및 가공식품업계의 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함.

○ 일본 콜드체인(냉장(低溫)식품 물류시장)도 덩달아 확대됨.

○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냉장 조리식품 취급 확대로 2014년 일본 냉장식품 물류시장은 전년대비 3.8% 확대된 1조 3,600억엔을 기록함. 또한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2017년에는 1조 5,5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한식은 일본인에게 친숙한 음식 중 하나로, 일본과의 지리적 이점과 발달된 콜드체인을 활용하여 일본의 편의점 등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캄보디아, 망고산업 동향

○ 캄보디아는 농산업으로 GDP의 26%를 얻는 국가이며, 전체 인구의 약 70%가 농산업에 종사하는 만큼 농업의 비중이 높음.

○ 캄보디아 농림부는 2013년 캄보디아 과일시장 규모를 약 1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추정함.

○ 망고·두리안·파인애플 등 다양한 종류의 열대과일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과일은 농장 형태로 생산됨.

○ 캄보디아 농림부 통계 기준에 따르면 2014년 캄보디아는 약 6만 5,000ha 규모에서 연간 약 260만 톤 규모의 망고를 생산함.

○ 캄보디아의 망고 종은 께오 로미엣(Keo Romiet)이 80% 정도로 가장 많으며, 께오 천(Keo Chen)이 약 15%로 뒤를 이음.

○ 께오 로미엣 종은 익숙한 노란색의 망고로, 캄보디아에서는 살짝 덜 익은 녹색망고를 따서 3~5일 숙성시킴.

○ 숙성된 망고는 색이 노랗게 변하며 당도가 높아지나, 오래 보관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캄보디아 망고는 1년 2모작이 가능하여 연중 3~4월에 한번, 10~11월에 다시 한 번 수확해 물량 확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음.

○ 전 세계와 자국 내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출 수요가 많지 않아 망고 농장의 확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14년 캄보이아 몽레띠 그룹(Mongreththy Group Co., Ltd.)이 최초로 캄보디아에 수출 전용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함에 따라 수출이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 보임.

○ 이 그룹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에 망고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하누크빌 지역에 망고 세척과 포장 등 기기설비 구입에 약 200만 달러, 면적 약 800ha 규모의 투자를 함.

○ 수출 증가를 통한 망고 가격 인상으로 캄보디아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함.

○ 지난 10여 년간 캄보디아의 망고 재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직접 수출된 것은 2014년 3월 몽레띠 그룹이 약 23톤의 망고를 중국으로 수출한 것이 처음임.

○ 캄보디아가 직접 수출하기 위해서는 망고의 세척, 저장, 포장 설비와 망고에 화학 물질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가공 공장 등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설비 부족으로 캄보디아 산 망고는 비공식적, 소규모로 접경국가에 판매되어 재 가공된 후 수출되고 있음.

○ 우리나라 망고 주 수입 국가는 태국·필리핀·대만이며 전체 망고 수입량의 90%임. 호주·미국·파키스탄 등에서 전체 수입량의 약 10%를 수입함.

○ 캄보디아산 생 망고는 각종 금지 해충 기주의 위험으로 2015년까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음.

○ 2015년 12월, 캄보디아와 한국은 쿼터 제한 없는 생 망고 수출에 관한 MOU를 체결함. 이는 캄보디아 최초의 망고 수출 MOU 체결 건임.

○ 한국으로 수입되는 캄보디아 생 망고의 수입 요건에 대해 합의하고, 캄보디아가 한국의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망고 수출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정보 공유 등 양국이 협력할 것을 요지로 함.

○ 캄보디아 대사관은 이번 체결된 MOU를 기반으로 캄보디아 생 망고 수출에 필요한 요건(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증열처리 시설 완비 등)을 구비하고, 한국 검역본부 전문가의 현지 조사를 통한 확인이 이루어지면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 희망함.

○ 이번 생 망고 수출에 관한 MOU 체결을 바탕으로 캄보디아는 세계 시장에서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으며 한국은 증가 추세인 국내 망고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생과실 수출 선결조건 문제 해결이 캄보디아산 망고 수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2. 22.(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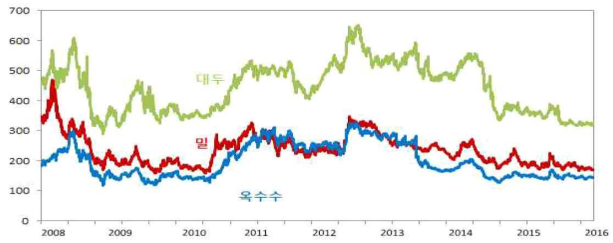
지속적인 남미 우호 기후 영향에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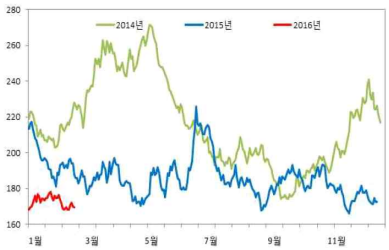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6.2.19)	전일대비	전월평균 ('16.1)	2015 평균
밀	169.61	▼0.1%	174	186
옥수수	143.85	-	142	148
대 두	322.68	▼0.2%	323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 3월물, 대두: 3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전일 1.3% 하락하며 반등을 시도했으나 기록적인 전세계 공급량 및 수출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반등에 실패하며 약보합 마감. 이집트 국영 곡물 바이어 GASC는 최근 입찰에서 미국 밀 입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장중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다 보합 마감함. 미국산 옥수수의 주간 수출 판매는 약100만 톤을 웃도는 예상 보다 많은 양을 수출 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남미 지역 긍정적이 수확 전망이 미국산 옥수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주요 생산지 여섯 주가 많은 강우로 홍수비상 지역으로 발령하였다고 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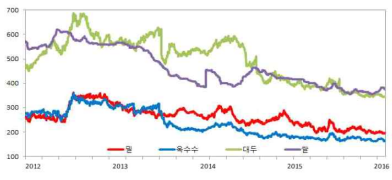
대두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브라질 대두 생산이 기록적으로 많을 것이란 전망이 확대되며 하방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짐. USDA는 미국산 대두 판매가 예상범위였던 40만~70만톤에 부합하는 567,000톤이 판매되었다고 보고함. 남미지역의 생육에 우호적인 날씨는 미국산 대두를 비롯한 옥수수 등에 지속적으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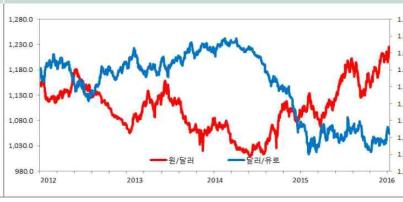
관련동향

- 특이사항 없는 펀더멘탈 상황에 곡물수출가격 약보합세
- 국제유가는 석유시장 초과공급 지속 우려, 주요국 증시 약세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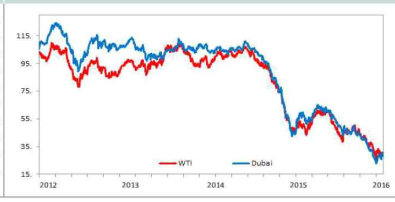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8	▼1.0%	환율	원/달러	1,224.8	▲0.1%
	옥수수	167	▼0.6%		달러/유로	1.1131	▼0.2%
	대두	349	▼0.3%	국제유가 (US$/B)	WTI	30.77	▼3.7%
	쌀	376	▼0.3%		Dubai	30.25	▼0.6%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3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2.18(수출가격), '16.2.19(환율), '16.2.19(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bsn02@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전남농기원, e모바일 쇼핑몰 운영 전문가 교육실시

- 농업인 정보화교육 7과정 200명 계획으로 2월부터 교육실시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과 동시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시장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월부터 e모바일 쇼핑몰 운영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 이번 교육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50%, 시·군 추천 50%로 선발하고,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정보화 기초교육 30시간 이상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전국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지로써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 농업인에게 2016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2~9월까지 실시하며, 쇼핑몰 운영 준비 2과정, 마케팅·홍보 4과정, 3D프린터 이해 및 농업활용 1과정으로 편성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컴퓨터로 이루어졌다면 모바일기기 진화로 모바일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모바일쇼핑몰 제작·활용과정과 3D프린팅·모델링 기술습득을 통해 창의적인 마인드를 함양하여 농업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및 완제품을 3D프린터로 출력 한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3D프린팅 이해 및 활용 과정을 신설하였다.

○ 올해는 내수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초석의 해로 e쇼핑몰 마케팅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농가경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김창옥 과장은 정보화분야의 현장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인 교육생들이 바쁜 일상에서도 전자상거래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교육생들에게 농가경영 개선과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농식품 수출, 이제는 온라인으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 농식품 온라인 역직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온라인 역직구란?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온라인 직구'와 대비되는 개념

○ 우리나라 농식품의 역직구 수출액 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15년 3/4분기까지 580억원 규모의 농식품이 국내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로 판매되었다.

○ 국내 온라인몰 중에서는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이 역직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홈쇼핑·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영문·중문 페이지를 개설하고, 해외배송을 지원하는 추세이다.

○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한 국내 온라인몰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 드라마에 나온 라면·즉석밥 등이 현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간편식품의 중국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신선식품·건강식품 등의 구매문의도 많아 다양한 농식품의 입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농식품부는 2월 15일, 농식품 역직구가 가능한 국내 온라인 몰에 대한 소개와 회원가입·구매·결제·배송 절차 등을 담은 “한국 농식품 온라인 역직구 가이드북”을 발간했으며, 총 8만부를 해외 소비자(중화권·일본·동남아·영어권)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구분	소개된 온라인 역직구몰
중화권	CJ온마트, 동원몰, 티몰, 판다코리아 등
일본·동남아·영어권	11번가, G마켓, GSSHOP, 우체국 포스트몰, 롯데닷컴, 현대Hmall, 인터파크 글로벌, Kmall24, Korea Depart, OKDGG 등

○ 가이드북은 e-book형태로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 사이트(www.kati.ne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가이드북 4종 표지 >

【중국】	【일본】	【동남아】	【영어권】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전남농업정보 73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